

# 大學에서의 相談要員 訓練의 課題

郭 峻 圭  
(東亞大 教育學科 助教授)

大學에서 學校相談要員을 양성하려는 계획은 지금까지의 단기교육을 통한 教師의 相談要員 轉用 計劃보다 進一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상담요원의 機能이나 役割, 教育內容과 方法 등의 規定에 많은 難題를 안고 있다.

## 1. 序

相談活動은 인간의 歷史와 더불어 존재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意味의 相談活動은 現代教育이 낳은 독특한 활동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學校의 組織 속에서 發展하여 왔다. 특히 中等學校와 高等教育機關에서는 相談의 기여도는 적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다.

學校나 여타 教育活動과 관련된 組織內에서의 상담의 役割과 機能은 形成期에 처한 學生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의 촉진을 도모하는 데 주로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물론 초기에는 그 專門性이나 學問으로서의 獨自性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論難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현재까지도 學校教育의 主要 機能으로서 相談活動의 위치가 확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활동의 學生指導에 대한 기여는 교육계나 社會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며, 이 分野의 필요성에 대한 社會의 인식은 보다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學校相談員(school counselor)의 養成은 1957年 서울특별시 教育위원회와 문교부의 주관으로 실시한 生活指導教師 訓練에서 기원한다. 이후 1970年代初에는 敎導教師(school counselor)制度가 법적인 뒷받침을 얻게 되었으며, 18學級 이상의 모든 中等學校에서는 專任 相談要員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各市, 道教育委員會에서는 매년 1회 또는 2회씩 상담교사 강습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學校相談要員 양성을 실시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체로 多年間의 교직경험을 가진 중견 교사 중에서 선발되며, 이들이 소정의 教育課程을 이수하면 敎導教師 資格證을 취득하게 된다. 즉 단기교육을 통한 교사의 상담요원 전용계획을 통하여 學校相談員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기간의 연수를 통한 教師의 相談要員 訓練計劃은 출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相談의 役割과 機能의 定立 및 專門性的 確立을 어렵게

해 있다.

한편 1982년도부터는 대학의 敎師教育 計劃의 일환으로 教育學科, 心理學科 등 행동과학 분야의 攻讀學生들에게 상담의 理論 및 實際에 관한 몇 개의 과목들을 추가로 이수케 하여 學校相談 要員으로 양성하려는 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大學에서 相談要員을 양성하려는 계획은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단기간의 교육을 통한 교사의 相談 要員으로의 轉用計劃보다 進一步한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도 상담요원의 기능이나 역할 또는 훈련을 위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相談의 目標 定立에 역으로 작용하여 훈련의 계획을 규정해 줄 내용과 방법의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學校相談 活動의 지위 확립을 위하여 상담의 概念, 機能, 目標을 차례로 생각해 보고 실제 상담요원 교육에 관한 당면과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學校相談의 基本概念와 機能

오랫동안 相談은 개념의 不明確性이 논란되어 오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상담의 理論的 背景이 心理學 특히 여러 가지의 性格理論, 人間發達理論 또는 心理治療理論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상담원에 따라서 그들이 상담활동의 骨格으로 삼을 수 있는 상담이론이 다양하여 어떤 한 가지의 接近方法만을 다루기가 곤란한 때문이며, 둘째 상담은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수행되느냐(場面)에 따라서 그 目標(的)도 달라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過程上的 다양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 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相談과 心理治療의 구별이 애매한 채 계속 논란되어 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위스컨신 大學校의 Sanborn 敎授는 學校相談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 奉仕의 對象과 教育的 役割 및 機能을 고려할 때 분명히 심리치료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심리치료는 주로 관심의 초점을 不適應

行動의 치료나 교정에 두는 데 반해 學校相談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促進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 學生들이 相談場面으로 가져오는 문제들은 不適應 行動이 아니라 대부분이 成長過程에서 야기되는 發達上的 問題라는 점도 學校相談의 概念設定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學生들이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문제들을 보면 개인의 가치관, 존재 의미, 진로선택, 자신이 人生을 살아가는 方法 등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의문들이며 문제행동 자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상담원의 訓練은 문제행동만을 다루는 훈련된 기술의 처리자를 양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포괄적으로 學生들의 進路를 지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구유한, 個人의 成長·發達の 촉진을 도울 수 있는 教育者의 양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學校相談은 모든 個人을 奉仕의 對象으로 삼는 學校教育의 한 機能으로 생각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학교의 相談活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民主市民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즉 이들이 장차 독립된 삶을 위하여 요구되는 知識과 技術을 個人的 次元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삶의 過程에서 부딪칠 여러 가지 問題의 解決, 개인적 선택의 현명한 決定,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學校相談은 너무 소극적이었으며, 전체 學生들의 全人的 發達이라는 問題에 등한히 해 왔다는 비판이 높다. 더우기 문제행동을 지닌 學生들의 치료나 교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相談 本來의 目的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問題行動(혹은 不適應 行動)의 치료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인간의 행동은 오랜 발달과정의 소산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이고도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 그러나 學校나 社會의 그릇된 認識 때문에 訓練이 부족한 學校相談員이 이 責任을 맡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失敗의 事例로 말미암아 學校의 相談活動의 教育機能으로서의 存在 價値

에 회의론 야기시켰다. Wiess와 Glasser 등은 병원에서 오랜 치료를 받은 후에야 문제 청소년들의 겨우 1/10 정도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調査結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문제발생 이후에 행하는 治療指向的인 相談活動의 非合理性을 지적하고 있다.

學校環境에서 모든 學生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人間으로서 누구나 開發 可能한 잠재력의 소유자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學校의 相談活動을 個 個 學生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훌륭한 환경 제공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 Ⅲ. 學校相談의 目標

相談活動은 그 場面の 多樣性和 더불어 理論이나 接近方法이 다양하며 따라서 目標의 뚜렷한 정립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연히 학교상담의 목표설정 문제도 지금까지 論難의 對象이 되어 오고 있다.

最近에 와서 學校相談의 概念은 학생들의 최극한 발달의 促進을 도모하도록 조력하는 活動이라는 發達的 立場을 취하게 됨으로써 거의 명확해져 가는 듯하나, 아직도 人間發達이 지향하는 궁극적 目標에는 異見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발달의 理想的인 概念과 人間の 行動을 지지하여 줄 윤곽과 지침을 세우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完熟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궁극적으로 소유하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學校相談의 발달적 입장에서 본 目標의 規定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人間이 完熟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몇 개의 發達段階를 거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現代의 教育課程도 여기에 근거하여 조직되고 있다. 人間の 발달단계의 區分은 年齡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기도 하나, 이러한 방법에 의한 分類에서는 教育의 劃一性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個人差의 不考慮라는 難點의 解決이 어렵게 된다. 더우기 상담활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學生들의 발달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학생

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과 그들이 창조해내는 自我를 끊임없이 검토하게 하여 自我에 대한 지혜를 啓發하여 나갈 수 있는 機會와 助言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差의 고려가 상담의 行動目標(behavioral objectives)에 주의깊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들은 學生들이 成就하여야 할 發達課業에서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發達段階에 따른 발달과업은 個人이 처하여 있는 環境과 文化的 背景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 우리나라의 文化環境에는 거기에 맞는 발달과업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文化환경에는 역시 그곳에 타당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學生들이 처해 있는 文化적 環境과 그에 수반되는 발달과업에 대한 연구가 學校相談 目標規定 이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

### Ⅳ. 學校相談要員 養成의 課題

현행 學校相談要員의 訓練은 뚜렷하게 정의된 地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概念이나 目標 또는 展望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물론 학교교육에서의 相談活動의 必要性이 學校行政家, 教師, 學父兄 또는 學生들에 의하여 막연하게나마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活動이 존재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쉽게 찾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大衆의 相談에 대한 理解는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며, 따라서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없더라도 큰 不便을 느끼지 않는 教育의 機能으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相談員訓練에 소용되는 費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있으며, 相談要員은 人間活動의 어떤 서점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教師의 相談要員 轉用에 대한 思考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教授活動과 相談活動을 혼합시킴으로써 상담원의 정상적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최소화시키는 原因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心理學이 關心할 정도로 발달하고 있고 人間行動의 複雜性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人間の 行動을 다루는 상담요원들의 심리학 및 관련 행동과학에 대한 철저한 기

초와 이해가 더욱 결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담요원들의 활동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나 교수와는 별로 관련을 맺지 못하고, 과정보다는 의도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립된 활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相談員은 大衆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能力과 準備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自身들을 지탱해 줄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學生面接時 사용할 지식과 技術의 理解와 開發이 또한 빈약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우기 단기간에 양성된 要員들이므로 專門家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통한 臨床經驗의 不在는 이들의 相談要員으로서의 役割과 機能을 더욱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學校教育에서의 相談의 位置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Bordin은 상담요원 양성과정에서 直接觀察과 臨床經驗의 重要性을 지적하면서, 學習에 있어서의 최대 효과는 集中的 演習에서 비롯된다는 學習의 基礎原理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相談要員 양성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要素인 관찰의 기회나 직접경험의 기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감독하에 행해지는 實際訓練과 敎生實習制度和 같은 現場經驗은 우수한 상담요원의 훈련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철저히 실행되어야 한다.

敎師教育이 附屬學校나 協同學校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相談要員의 訓練도 대학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不充分하다. 그러므로 各級學校와 大學間의 유기적인 協助로 被訓練者에게 가급적 충분한 현장관찰과 임상경험의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大學의 關係學科에 의한 상담요원 실습계획의 개발이 절실한 상태이다.

學校相談員들의 奉仕의 대상은 初期 또는 後期 青年期에 속한 학생들이다. 이들의 發達課業은 주로 自我正體의 確立, 부모나 동료들과의 성숙되고 獨立的인 관계의 유지, 일하는 습관의 안정된 발달, 친근감의 표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學校相談員의 양성계획에는 상담

원이 學生들의 이러한 發達過程上의 問題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能力과 技術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學生時節은 發見의 時代이다. 이들은 思考나 人間世界 또는 社會의 習慣이나 組織에 대한 知識을 추구하기를 원하며 이것을 위하여 자신들의 能力이나 態度, 또는 재능이나 기술을 시험해 보기를 원한다. 따라서 相談員은 학생들의 다양한 心理的 慾求와 이들이 자신들의 能力을 평가하여 스스로의 慾求充足에 노력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에 통달할 수 있도록 그 교육내용이 組織되고 實行되어야 하겠다.

## V. 結 語

學校教育은 學習指導와 生活指導가 자기 독립적인 機能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相互補完的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教育이 지향하는 바 目的 達成이 가능하다.

學習指導活動은 이미 그 役割과 機能에서 중요한 學校教育의 計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그 目標의 정립도 어렵지 않다. 반면에 상담활동 계획은 學校教育의 다른 하나의 주요 機能으로 정의되어 왔으면서도 그 教育哲學的 背景의 논란 때문에 活動의 性格과 機能, 役割 등의 基本概念 정립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教育의 內容과 方法의 定義에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계획의 수립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

어떻든 相談活動은 學校教育 計劃의 양대 주류의 하나인 生活指導計劃의 主要 活動으로서 教育의 過程에 없어서는 안 될 영역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다. 이 活動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自我에 관한 지혜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기능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學校가 제공하는 다양한 活動과 學生 個個人의 결속을 促進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全人으로서의 成長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學校相談員의 양성계획은 이미 주어진 固有의 機能과 役割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한 여러 가지 事實을 시급히 補完 再定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